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김 경 화(대구가톨릭대 교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8년 한해 241억 7천 3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 대규모 사업 전국 5,214명의 방문교육지도사가 17,762개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이하 방문교육지도사)가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감정 및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사회적 거리감은 타 집단 구성원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김희자, 2008), 그 집단에 대한 친밀감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방문교육지도사는 결혼이주여성 및 이들의 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남아시아인의 수용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거리감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에 대해 개인이 갖는 지식, 신념과 기대를 포괄하는 인지적 구조를 의미하며(Hamilton & Troiler, 1986), 감정은 어떤 집단에 대한 호감도(김혜숙, 2009)를 가리킨다. 방문교육지도사가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갖는 수용적 태도가 고정관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 혹은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 살펴봄으로써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논문(김경화, 2010)이 있을 뿐으로 아직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동남아시아인 등 타인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 또한 많지 않은 편이며, 외국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김혜숙·오승섭, 1999; 임성택, 2003; 전영자·전예화, 2010).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 및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편견적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상기 설정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다문화가족방문사업을 실시하는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사업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변인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27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43부를 회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43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혜숙·오승섭(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임성택(2003)의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방문교육지도사가 갖는 고정관념은 7점 만점에 4.57점, 감정은 7점 만점

에 4.97점, 사회적 거리감은 7점 만점에 4.57점으로 나타났다. 즉 방문교육지도사가 갖는 고정관념, 감정 및 사회적 거리감은 보통 정도라 할 수 있다.

둘째, 고정관념은 연령($t=2.197, p<.05$)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30대 이하의 방문교육지도사가 40대 이상에 비해 보다 긍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경제수준 및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감정은 연령, 학력, 경제수준 및 근무경력 모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감 또한 연령, 학력, 경제수준 및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방문교육지도사가 인식하는 고정관념과 감정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동남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는 연령, 동남아인에 대한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방문교육지도사의 고정관념은 사회적 거리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32.0%($R^2=.320, p<.001$)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관념과 연령은 33.3%($R^2=.333, p<.001$), 고정관념, 연령, 감정은 34.8%($R^2=.348, p<.001$)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관념이 사회적 거리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방문교육지도사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정관념과 관련한 기존 연구(Bodenhausen & Wyer, 1995; Rothbath & John, 1995)에 의하면, 이미 형성된 고정관념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개인이 소수집단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 집단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과 일치되지 않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접촉만으로는 고정관념의 변화는 어려우며 편견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동남아인에 대한 호감도를 의미하는 감정 또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문교육지도사의 감정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